

‘신형 쏘나타’ 돌풍… 사전계약 5일 만에 1만대 돌파

SUV 열풍 속 중형세단 들쭉
하루 평균 2000대씩 계약
개인·20대 고객 비중 증가
첨단 편의사양 장착 효과

현대자동차의 올 상반기 기대작 신형 쏘나타가 중형 세단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 11일부터 전국 영업점을 통해 신형 쏘나타 사전계약을 진행한 결과 닷새 만인 15일까지 1만203대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하루에 약 2000대씩 계약된 것으로 지난해 기준 쏘나타 한달 평균 판매대수 5487대보다 거의 두 배나 많은 실적을 불과 5일 만에 달성한 것이다.

특히 전 세계적인 SUV 열풍으로 인해 지난 5년간(2014~2018년) 국산 중형세단의 산업수요가 무려 19.8%나 감소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달성한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회사측은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신형 쏘나타 사전계약



면밀히 살펴보면 단순 수치상의 대수 그 이상의 큰 변화가 나타났다. 신형 쏘나타는 기존 모델인 7세대 쏘나타 대비 개인 고객 비중과 20대 젊은 세대 비중이 월등히 높아졌다.

5일간 접수된 신형 쏘나타 사전계약 중 개인고객 비중은 무려 48.9%로 5년 전 같은 기간 동안 접수된 7세대 쏘나타의 개인고객 비중 38%보다 무려 10.9%나 높아졌다. 또 개인고객 중에서 20대 비중은 14%로 집계돼 7세대 쏘나타 5.3% 대비 8.7%가 높아졌다.

이같은 인기 요인으로 차세대 파워트

레인과 3세대 플랫폼 적용, 첨단 사양 기본화하고 합리적인 가격 등을 꼽을 수 있다.

실제로 신형 쏘나타는 차세대 파워트레인과 '스마트스트림'과 3세대 플랫폼을 적용해 차량의 근간을 완전히 바꾸고, 첨단 지능형 주행안전 기술과 첨단 편의사양을 대거 기본화하고도 기존 모델 대비 가격인상을 최소화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실질적인 혜택을 늘렸다.

기존 쏘나타에서는 선택품목이었던 '첨단 주행안전 기술'과 고급차에서 볼 수 있었던 '편의사양'을 모두 갖춘 신형 쏘나

타 엔트리 트림(시작모델) '스마트'의 판매가격을 2346만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쏘나타 뉴 라이즈' 엔트리 트림 '스타일' (2219만원)보다 127만원 높은 것으로 첨단 주행안전 기술과 첨단 편의사양을 기본화한 점, 차세대 파워트레인과 3세대 플랫폼 적용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

신형 쏘나타는 스마트폰과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에 대한 고객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엔트리 트림부터 전방 충돌 방지 보조(FCA)와 차로 이탈방지 보조(LKA), 차로 유지 보조(LFA), 하이빔 보

조(HBA), 운전자 주의 경고(DAW), 전방 차량 출발 알람 등의 첨단 지능형 주행 안전 기술을 대거 기본 장착했다. 기존 쏘나타에서는 선택품목인 '현대 스마트 센스 패키지 I' (131만원)을 구매해야 누릴 수 있는 사양들이다.

이와 함께 주로 고급차에 적용됐던 '전자식 변속버튼(SBW)'과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EPB)' 등의 첨단 편의사양과 함께 'ISG시스템'과 '파워 차일드 락'까지 기본화했다.

가격은 ▲스마트 2346만~2396만원 ▲프리미엄 2592만~2642만원 ▲프리미엄 패밀러 2798만~2848만원 ▲프리미엄 밀레니얼 2994만~3044만원 ▲인스퍼레이션 3289만~3339만원 범위 내에서 책정될 예정이다.

한편 현대차는 모빌리티 혁신을 선도하는 신형 쏘나타의 스마트한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을 강조하기 위해 택시 모델은 출시하지 않기로 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한라시멘트, 지리적 장점 살려 해외 공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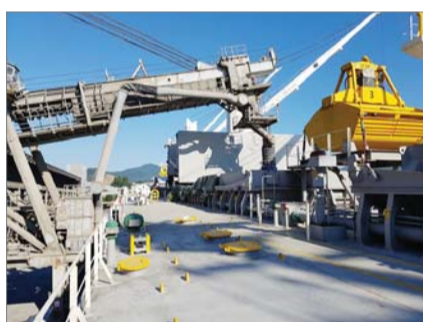
강릉 공장, 동해·태평양 이용
남미·동남아 등 수출 활로 넓혀

한라시멘트가 해안에 공장이 위치한 장점을 살려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로 지난해부터 관련 경기가 서서히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당분간 국내 시장에서 업계 전체가 고전을 겪을 가능성이 커 해외로 적극 눈을 돌리기로 한 것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라시멘트는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수출 물량 확대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라시멘트는 현재 강릉 옥계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 동해와 태평양을 이용해 해외 수출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한라시멘트 외에 해안사로는 쌍용양회(동해), 삼표시멘트(삼척)가 있다.

실제 한라시멘트는 지난해 초 아세아시멘트 계열사로 편입된 이후 해외 수출에 적극 나서면서 지난해 수출 물량이 113만 톤으로 전년에 비해 40%나 늘어났다.

이는 꾸준한 수요가 이어지고 있던 칠레, 페루, 콜롬비아 등 남미와 필리핀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 등 기존 거래처의 물량 확대가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 중국



강원도 옥계에 위치한 수출 선박과 한라시멘트의 클링커 선적 장면.

등 신규 거래처 추가 확보도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주택건설 경기 둔화가 이어질 올해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말 중남미 및 동남아 지역에서 나온 국제입찰에서 100만톤에 달하는 클링커(시멘트 반제품)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고, 전통적 전략지역인 남미와 동남아의 계획 물량에 대해서도 이미 계약을 끝내 순항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규 거래처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남미와 아시아 시장에 주력하는 동서횡단 무역에서 앞으로 북방과 남방국가를 아우르는 남북중단 무역으로 탈바꿈을 모색하면서다. /김승호 기자 bada@

LGU+, 대학생 서포터즈 '유대감' 4기 모집

9월까지 온라인 홍보 활동

LG유플러스는 대학생 디지털 기획·홍보 대외활동 유플러스 대학생 서포터즈 '유대감' 4기를 24일까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유대감'은 '유플러스 대학생 서포터즈'의 감각적인 콘텐츠의 줄임말이다. 2017년 10월부터 1기 활동이 시작됐다. LG유플러스 5G 서비스와 '신뢰', '소속감', '휴머니즘'이라는 브랜드 가치 아래 진행 중인 사회공헌 및 고객감동활동을 소재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콘텐츠를 제작해 LG유플러스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유대감 4기는 국내 대학 재학생·휴학생·유학생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창의적인 주제 발굴·기획의 'IT·TECH' 분야, 영상 촬영·편집의 '영상' 두 분야로 모집한다. 24일 자정까지 LG유플러스 유대감 공식 포스트 내 유대감 4기 모집 게시글을 참고해 온라인 지원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정된 유대감 4기는 4월 5일 LG유플러스 용산 본사에서 진행되는 발대식에 참가한 뒤 9월까지 총 6개월간의 활동 기간을 가진다.

/김나인 기자

SUV야, 세단이야... 장점만 다 모았네

자동차 시승기

볼보 V60 크로스 컨트리

볼보자동차가 지난 5일 출시한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CUV) V60 크로스 컨트리는 어린 자녀를 둔 30대 젊은 부부와 싱글 남성을 겨냥한 차량이다. 볼보자동차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국내 물량 1000대 중 사전계약이 90%나 이뤄졌을 정도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지난 12일 충청북도 제천시 리솜포레스트에서 출발해 강원도 원주를 돌아오는 총 140km 구간을 주행하며 국내 출시된 일반 트림 V60 T5 AWD 모델과 상위 트림 V60 AWD 프로 모델을 시승했다.

처음 마주한 V60은 SUV와 세단을 합쳐 놓은 것 같은 외관을 띄고 있었다. 차체재원은 전장 4785mm, 전폭 1850mm, 전고는 1490mm다. 지상고는 210mm로 이전세대보다 74mm 높아졌다. 후방 차체, 트렁크는 왜건(wagon)형 승용차처럼 길게 늘어져 있다.

내부 마감은 플라스틱이 아닌 가죽 중심으로 되어 있었다. 곳곳에 보이는 나무무늬는 스웨덴 북유럽 감성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레그룸과 헤드룸도 넓어 1열과 2열 시트 모두 180cm 이상 성인남성이 탑승해도 공간이 넉넉했고



주행 중인 신형 크로스컨트리(V60)

/볼보자동차코리아

국내 물량 중 90% 사전계약 완료
스웨덴 북유럽 감성 내부 디자인
어떤 도로에서도 안정적 주행 성능
장시간 운전자 위한 마사지 기능도

착좌감도 훌륭했다.

직렬 4기통 T5 터보차저 2.0 가솔린 엔진과 8단 자동 기어트론닉 변속기 조합으로 출시된 V60은 최고출력 254마력, 최대토크 35.7kg·m의 힘을 자랑한다. 시승 시 일부 구간에서 폭우를 만났지만 빗길에서도 승차감은 부드럽고 산길 등 급커브 구간에서의 조향은 안정적이었다.

V60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떤 도로 지형이나 날씨에서도 안정적인 주행환경을 제공하는 성능에 있었다. 스프링과 완충기의 댐핑컨디션을 조정할 크로스

컨트리 전용 투어링 새시와 서스펜션을 적용해 오프로드에서의 대응력을 높였다.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 좋았으며 가속 시 발생하는 노면 소음도 잘 잡아내었다.

V60 프로 모델에서는 운전 중 마사지 기능도 경험할 수 있었다. 장시간 주행으로 피로한 운전자를 위해 적격이었다.

V60을 운전하며 각종 첨단 편의시스템도 체험했다. 시티 세이프티 기술이 전 차체에 기본 적용됐으며 일정 간격으로 유지하며 최대 140km까지 주행이 가능한 파울릿 어시스트 역시 기본 탑재됐다.

판매가격(부가세 포함)은 일반 트림 V60 T5 AWD가 5280만원, 상위 트림 V60 T5 AWD 프로는 5890만원이다. 영국·스웨덴보다 600만~1000만원 가량 저렴하게 책정됐다.

/정연우 기자 yw964@

SKT '티움', IF 디자인 어워드서 금상

실내 건축분야·설치부문 본상

SK텔레콤은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린 'IF 디자인 어워드 2019'에서 자사의 '티움'이 실내 건축분야 '박람회·상업 전시' 부문 최고상인 금상과 설치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티움'은 미래 정보통신기술(ICT) 비

전 제시를 위해 SK텔레콤이 설립한 ICT 체험관이다.

IF 디자인 어워드는 1953년 독일 인터내셔널 포럼 디자인 주관으로 시작된 디자인 공모전이다. 이번 IF 디자인 어워드에는 전 세계 50여개국의 다양한 기업과 단체들이 6400건이 넘는 작품을 출품했고, 금상은 66개 작품에 수여됐다. '티움'은 실내 건축분야 '박람회·상업 전시' 부문에서 최고상을 수상했다.

심사위원진은 '티움'에 대해 "일관된 디자인의 공간과 콘텐츠로 혁신적인 기술들을 효율적으로 선보인다"며 "5G, VR, AR, 홀로그램 등 4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하는 전시장 연출은 방문객의 경험과 절묘하게 어우러지며 간결하고 수준 높은 미래 공간을 보여준다"고 수상 이유를 밝혔다.

/김나인 기자 silkni@